

단위학교 예술영재학급 교육과정 개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탐색

이 경 진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김 성 혜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강 병 직

청주교육대학교

본 연구는 예술영재교육기관의 유형 중 단위학교 예술영재학급의 교육과정 개발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단위학교 예술영재학급 교·강사 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6명(음악4명, 미술2명)을 면담했다. 분석결과, 단위학교 예술영재학급 교육과정 개발은 담당교사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강사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교육과정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교사가 교육대상자인 예술영재나 예술영재 교육과정에 대해서 모호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교사의 개인적 노력에 의존하여 전문성 부족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장기적인 교육과정 개발을 계획할 수 있는 연구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예술영재교육 연수를 제공해야 하고, 예술영재 교육과정과 관련된 연구들을 단위학교 예술영재 담당교사나 강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교육과정 개발 협의체나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단위학교 예술영재학급의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위학교 예술영재학급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교육과정 개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예술영재 성취기준을 개발하며, 중장기적 안목에서 예술영재학급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단위학교 예술영재학급 교육과정, 교육과정 개발

I. 서 론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은 제1차 ‘도입기’, 제2차 ‘발전기’를 거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제3차 ‘도약기’에 이르고 있다. 국가 전체의 교육 및 우수 인재 양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속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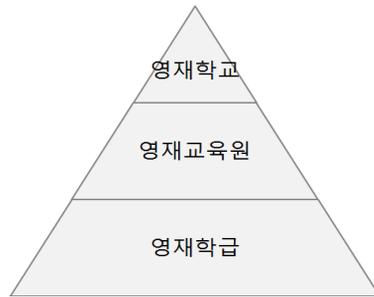
교신저자: 이경진(leekjin@ewhain.net)

* 본 논문은 문화체육관광부 기금(2014) 지원에 의한 ‘예술영재학급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개선 방안 연구’ 연구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임.

능한 전략을 제시하여 영재교육 도약을 견인한다는 목적 아래, 영재교육기관 설치를 확대했고 그 결과 영재교육은 지난 10년간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영재교육기관 설치 확대로 전체적인 영재 교육 수혜자는 증대했지만, 질 관리에 있어서도 성공적이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반성에 의해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교육부, 2013)에서는 교육기관 간 연계성 확보, 즉 기관별 교육내용과 수준의 차별을 통해 영재 발굴과 교육에서의 무의미한 반복과 중복, 단절을 제한하여 효율적인 교육 관리를 이루고자 노력하는 중이다. 그리고 국가표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 개발과 함께 영재교육과정에 대한 정기적인 컨설팅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포함시켰다.

현재 우리나라 영재교육기관은 그 유형별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하면, 영재교육기관 유형은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영재학급’으로 나눌 수 있다. ‘영재학교’는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며 전문분야로 특화되어 있는데, 예술 분야에 대한 영재학교는 아직 설립되지 않았다. ‘영재교육원’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에 설치·운영되는 부설기관(2조)으로, 시도교육청, 대학, 국공립 연구소, 정부출연기관 및 과학·기술, 예술, 체육 등과 관련된 있는 공익법인에서 설치·운영(8조)할 수 있다. ‘영재학급’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 급 학교에 설치·운영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학급으로(2조),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 급 학교에 교과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설치·운영(7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법 규정에 근거하여, 예술영역에서의 교육기관은 [그림 1]과 같은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이는 공교육 체제 하에서 예술영재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예술영재교육의 비전 및 우리나라 교육기관과 맥락에 기반한 체계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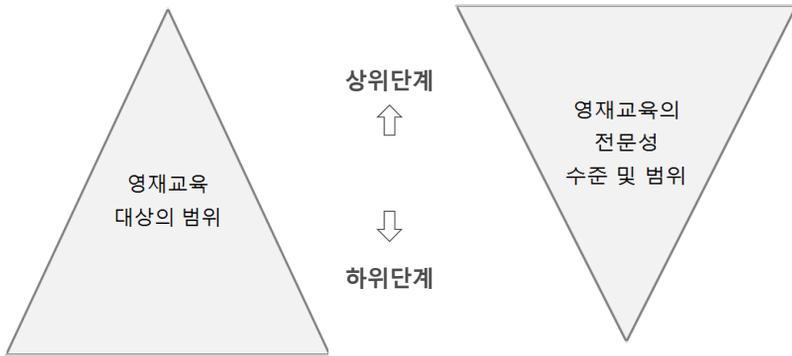


주: 김춘미 외(2006), p. 159 재구성

[그림 1] 예술영재교육기관 체계

예술영재교육체제상 예술영재학급은 기초과정으로, 예술영재교육원은 사사·심화과정으로 운영되도록 구분되어 있다. 이 같은 체제를 마련하고 기관별 특성을 구분한 이유는 예술영재학교, 예술영재교육원, 예술영재학급이 그 기능 및 역할을 적절하게 분담하고 특성화하여 각 기관의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김춘미 외, 2006). 뿐만 아니라 기관별 특성화나 차별화된 교육과정은 예술영재성의 발달적 측면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정진원,

2012). 예술 분야나 세부전공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예술영재성은 잠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대체적으로 그 발현과정은 일반적 예술능력의 발달단계를 매우 빠르게 거치며 그 역량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위계적 속성에 근거한 교육과정이 요청된다. [그림 2]와 같이 하위단계에는 예술 분야의 감수성과 창의성, 그 외에 기초적인 문해력과 기능 개발을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고, 상위단계에는 예술 영역에서의 기능과 지식, 표현력 등이 보다 더 분화되면서 그 난이도와 깊이, 차별화가 더해지며 그 범위 또한 넓어진다(정진원, 2012). 하위단계는 음악이나 미술활동의 기본적 능력개발을 위한 과정으로 보다 많은 수의 대상자들이 예술영재교육 수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반면, 상위단계로 진행될수록 더욱 심화된 음악이나 미술 능력 개발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교육의 내용과 난이도, 복잡성과 다양성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학생들로 그 대상이 압축된다.



주: 정진원(2012), p. 279 재구성

[그림 2] 예술영재교육과정의 단계: 대상 및 수준의 위계

이런 점에서 예술영재교육체제와 예술영재교육과정의 특성상 영재학급은 기초과정으로 운영되어야 하여 예술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예술에 대한 기초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심화단계([그림2]의 상위단계)와의 연계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예술분야에서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의 차이를 기초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지닌 개념적 구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에 있어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이 이러한 교육과정상의 차이를 정확하게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예술영재교육 현장을 살펴볼 때, 영재교육원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의 여건 상 기초 수준의 교육 내용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 있으며, 반대로 영재학급의 경우라 하더라도 학교의 특성 상 상위 수준의 교육 내용이 제공되는 학교도 있기 때문이다(이미경, 강병직, 2010). 즉, 원론적으로는 영재학급에서 기초 과정을, 영재교육원에서 심화 과정을 제공하여야 하지만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의 차이는 설치 주체와 운영 방식과 같은 제도적 관점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재학급 중에서도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단위학교 영재학급이다. 영재학급은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지역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공동 영재학급’과 방과 후에 해당학교 소속 학생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단위학교 영재학급’으로 구분되는데, 단위학교 예술영재학급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원이나 지역공동 영재학급과는 다른 상황에 처해있다. 특히 설치·운영 주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공동 영재학급은 시도교육청에서 직접 관련 경비를 지원하는 반면 단위학교 영재학급은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된다. 또한 단위학교 영재학급은 각 단위학교의 영재담당교사가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고 있지만 기관 내부에 전문가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외부 전문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지역공동 영재학급에 비해서 예산이 충분치 못하며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과 관련된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경진, 최진영, 2013). 이런 이유로 단위학교 영재학급에서 선발되는 영재학생들의 영재성 수준이나 부실한 영재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김혜정, 한기순, 2013). 예술영재교육기관의 특성화와 관련해서 영재학급(2.93점)이나 교육원(3.07점)의 특성화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결과(김성혜, 2013)는 현재 예술분야에서 영재학급이나 교육원의 교육목표나 구체적인 실행에서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함을 보여준다.

이처럼 단위학교 예술영재학급은 교육과정 개발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문제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물론 예술분야 뿐 아니라 수과학 분야의 단위학교 영재학급도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고 비슷한 문제들을 겪고 있겠으나, 예술영재교육 분야의 경우는 예술교육의 제 문제 예를 들면 보다 많은 수의 강사가 요구되며, 고가의 시설(악기, 기자재 등)과 교재의 필요 등과 영재교육의 문제들이 훨씬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단위학교 예술영재학급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교사들의 경험과 진술을 토대로 교육과정 개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단위학교 예술영재학급 교육과정 개발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위학교 예술영재학급이 예술영재교육의 기초과정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위학교 예술영재학급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어떠한 노력과 개선방안이 필요한지를 논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단위학교 예술영재학급 교육과정의 목표와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예술영재교육 기관체제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예술영재교육의 기초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단위학교 예술영재학급의 교육과정 개발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단위학교 예술영재학급 교·강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현황을 조사했다. 현재 전국의 단위학교 예술영재학급은 음악분야와 미술분야에서 총 28개 학급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중 설문에 응

답한 영재학급 교·강사는 총 16개 학급(57.1%), 28명이었다. 표집 수가 적은 이유는 단위학교 예술영재학급의 수가 적을 뿐 아니라 개인정보 관리의 특성으로 인해 단위학교 예술영재학급에 참여하고 있는 교·강사 명단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운영의 특성 상 각 학교의 영재 담당교사를 통해 설문지를 배포할 수밖에 없어 전체 교·강사에 대한 설문 참여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방법에 기반하기보다는, 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수행하고 분석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하고 양적 분석 결과는 전체적인 경향성을 파악하는 정도로만 사용하는 혼합연구 방법(Miles & Huberman, 1994)을 취했다.

질적연구를 위한 면담을 위해서 설문에 참여한 교사 중 6명을 선정하였는데, 설문 조사에 충실하게 응답한 교사들 중 면담을 수락한 예술영재학급 담당교사들 중에서 모든 학교급이 포함되도록 선정하였다. 교사1¹⁾은 초등학교 단위학교 예술영재학급 담당교사로 현재 재직 중인 학교에서 2년7개월 동안 음악영재학급을 담당했고, 이전에 근무하던 학교에서 가장동아리를 지도한 경력이 있다. 교사2는 처음으로 초등학교 음악영재학급을 담당하게 된 경력4년차 교사로 오케스트라 지도도 담당하고 있었다. 교사3은 8년차 초등학교사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2008년부터 7년간 음악영재학급을 담당했다. 교사4는 예술고등학교 강사 경험이 있고 현재는 중학교 음악교사로, 현재 재직 중인 학교에서 3년 6개월간 음악영재학급을 담당했다. 교사5는 초등학교 교사로 미술영재학급 운영을 위해 현재 근무하는 학교에 초빙교사가 오게 되었고 처음으로 미술영재학급을 담당하고 있다. 교사6은 고등학교 교사로 4년 10개월간 미술영재학급을 담당하고 있다. 음악영재학급에 고등학교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단위학교 음악영재학급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없고, 미술영재학급에 중학교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 역시 현재 우리나라 중학교에서 단위학교 미술영재학급을 운영하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설문조사를 통해 단위학교 예술영재학급의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예술영재학급과 관련된 선행연구들(김혜정, 한기순, 2013; 백경미, 2012; 이경진, 최진영, 2013; 이정규 외, 2007)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과정 전문가, 음악영재 교육전문가, 미술영재교육전문가가 3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예비문항을 개발하고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여 설문문항을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응답자의 특성, 예술영재학급 현황,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총 28개 문항을 확정하였다. 특히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해서는 교육과정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교육과정 관련 협의회 개최 빈도, 교육과정 관련 협의회 주요 내용, 교육과정 개발 시 참고자료,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교사의 인지 정도,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개선 사항 등을 설문하였다. 설문분석은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빈도와 비율, 평균, 표준편차 등 단순통계만 실시하였다(이학식, 임지훈, 2014).

1) 면담자의 익명성을 확보하고자 교사 이름 대신 교사1, 교사2, 교사3, 교사4, 교사5, 교사6로 기술하였음.

면담조사는 단위학교 예술영재학급 교사들이 생각하는 교육과정 개발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30~50분 간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은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면담질문은 누가 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지, 교육과정 개발의 초점은 무엇인지,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어떤 자료들을 참고하는지,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자료 접근에 어려움이나 아쉬움은 없는지 등이었다. 면담한 자료를 모두 전사하고 Miles와 Huberman(1994)과 김영천(2012)의 질적자료 분석의 일반적 과정을 참고하여 귀납적으로 주제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주제를 중심으로 면담내용들을 직접 인용하였고 관련된 설문 결과들을 서술하였다.

조사 결과 드러난 단위학교 예술영재학급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전공자, 음악영재교육전공자, 미술영재교육전공자로 구성된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해 구안하였다.

III. 단위학교 예술영재학급 교육과정 개발의 문제점

1. 강사 의존으로 인한 교육과정 개발의 체계성 미흡

현재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 예술영재학급은 강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영재학급의 교육시간(120시간)을 담당교사 혼자서 가르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예술영재교육의 특성 상 한 명의 교사가 전부를 가르치는 것 역시 적합하지 않다. 이로 인해 예술 분야에서는 세부 전공별로 강사가 수업을 실시하는 것이 수업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할 때 당연한 과정이다. 그러나 담당교사가 수업을 하지 않고 운영만을 담당할 경우 예술영재 교육과정 개발은 외부의 강사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이루어지고 있었고, 누가 강사로 섭외되느냐에 따라 교육과정이 결정되었다.

교사2: 저는 행정적인 업무라든지 아니면 애들 생활지도나 아니면 외부 의 행사를 섭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질문자 : 그러면 그 강사선생님이 그... 관악부를 지휘도 하시고 아이들 레슨도 하고 그러시는 건가요?

교사2 : 예, 지휘도 하시고 애들 레슨도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중략) 사실은 저희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술교육.. 영재교육과정에 대한 개발이 조금 미진하다 보니까, 사실 수업 진행자체, 수업이나 교육과정 운영자체는, 강사선생님의 색깔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좌지우지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할 분담을 테크닉적인 부분이나 음악적인 부분에서는 강사 선생님한테 많이 의지하는 편입니다.

교사5: 강사들이 오시는 걸 보면 분야가 있더라고요. 나는 전통미술을 해요, 이런 식으로. 약간의 주제 먼저 잡고 이거랑 비슷한 사람의 강사를 섭외해 주셨어요. 근데 자세히 물어보니까 이거랑은 조금은 동떨어진 강사도 있었어요. 그니까 그분은 그 걸 수업하고 싶다. 아이들

의 관심도, 이 학교에 따른 프로그램과의 연관성, 연계성 아무 것도 없고 오로지 그 분이 전통미술을 했으면 그냥 전통미술을 하는 주가 되는 거고...(중략) 그 분(강사)에 의해서 이렇게 한 번은 추상 미술 한번은 현대미술 한번은 전통미술 한번은 아이들 아크릴로 했다가 한번은 이렇게 다양한 걸 맛보는 거 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교사6: 사실은 이게요. 그 교사들이 나눠 먹기식이었거든요. 남들이 볼 때는 그래요. 우리 시교육청 뭐 교수님들이나 작가분들이 조금씩 참여하고 거의 미술선생님들이 하시더라고요. (중략) 현직교사는 4시간 정도 세 명이 특강만 하고요. 작가 선생님들, 교수님들 해가지고 저희 학교 선생님 말고. 그 다음에 또 예술분야에 일하시는... 심지어 뭐 학원도 괜찮고요. 특출하신 분들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교육과정에 주요한 부분들, 한 사람이 한 20시간에서 15시간 이상 씩. 나누어서. 이게 진짜로 교육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담당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예술영재학급 수업을 담당하는 강사에 따라 매년 교육과정이 달라지는가라는 질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와 ‘보통이다’는 각각 7.1%, 28.6%였고, ‘조금 그렇다’가 35.7%, ‘매우 그렇다’가 28.6%로, 강사에 따라 교육과정 개발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강사에게 의지하는 이유는 담당교사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예술영재학급을 담당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보다는 강사들이 전문성을 갖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사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교사5: 아직 제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어있는 상태여서 지금 올해 처음 딱 말았을 때 그냥 작년 분이 하셨던 거,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느라고 그니까 하루하루 사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하루하루 물어가면서 지금 그래서 너무 답답해요. 내가 멀리보고 가면은 이게 있어야 하는데 가까이 있는 것만 보고 쫓아가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교사2: 그게 이제, 제가 아직 뭐 역량이 부족한 탓도 있고, 예술영재교육과정 개발에 대해서 제가 아직 그렇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강사 선생님은.. 그 전문가지 않습니다. 전문도, 전공 하셨고,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12년 동안 저희 학교에서, 저희 학교에서만 잇달아 지도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의지를 하는 편입니다.

특히 초등교사의 경우에는 음악이나 미술을 심화전공으로 이수했다라도 자신이 예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술교육이 아닌 영재를 대상으로 한 예술영재교육에 있어서 자신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교사2: 초등에 있는 음악선생님들이, 중등의 선생님들처럼 뭐 전문적으로 이제 악기를 전공 하셨다든지, 프로페셔널 음악에 대한 이렇게.. 이론 자체는, 그렇게 심도 있게 공부하신 분이

많이 없습니다. (중략)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냥 교육과정에 있는 예술교육은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예술영재라는 게, 이게 좀 차별화 된. 그런 면에서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교사5: 일단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일단 영재 조건이 영재관련 이수, 이수 몇 시간인가 가지고 해서 작년에 막 열심히 연수 듣고 그렇게 한 거고 미술도 제가 10년 동안 하지 않다가 또 작년에 그 이제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있는 것들 다 연수를 받았어요. 그때 그래서 총 200 몇 시간 받았던 것 같아요.

예술영재학급 담당교사들은 강사들에게 의존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교사5: 제가 뭔가 머릿속에 전체적인 게 있다면 이걸 운영할 때, 왜 학급 운영할 때처럼 운영할 때 아 이 때쯤에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다 이유가 있잖아요. 이걸 하는 순서를 다 정해 가지고 여러 개 있으면 정해서 이러 이렇게 해서 끝에는 종합적으로 뭔가 아이들이 느낄 수 있게 향상될 수 있게 뭔가를 짤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답답해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구..

교사6: 작년까지는 사실은 선생님을 구하면, 내가 어떤 수업을 해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 선생님에 맞춰서 알아서 하십니다. 상당히 불합리 하죠, 그죠?

따라서 예술영재학급 담당교사들은 강사에 대한 의존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교사1이 근무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총 2명의 교사가 주축이 되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었고, 운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교사가 직접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강사를 초빙하고 있었다.

교사1: 저희 학교에는 음악 전문가 선생님들이 많아서 해마다 몇몇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특강 형식의 수업을 중간 중간에 진행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동요작곡가 선생님의 작곡법 수업, 이야기음악 만들기와 즉흥연주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께 이야기를 활용한 즉흥연주 수업, 피아노 연주와 리코더 합주 지도 전문가 선생님께 관련 수업을 부탁드리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교육과정이 달라진다고는 교육과정의 큰 틀 안에서 프로그램 내용이 달라진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교사6의 경우에도 교육과정을 강사에게만 맡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들을 참고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강사들과 협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교사6: 올해는 제가 교육과정을 짰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있는 책도 보고. 주로 한예종에 들어가면 영재연구원 있지요? 교육개발원 자료하고 OO교육청 영재자료 있거든요. 초등자료. 그런 것들 보고 제가 책을 짰습니다. 짜고 거기에 맞는 선생님들을 구했어요. 그래서 만나

가지고 교육 내용을 제가 전달을 하고, 내용의 주제를 해주시는데 그건 선생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애들 다 모아놓고 강사 분들이 오셔서 1년 치 자기 교육 내용을 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교사1의 경우에는 단위학교에 음악 전문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강사에 대한 의존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었고, 교사6은 디자인을 전공한 중등교사였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과정 개발이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교육과정이 강사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예술영재를 위한 계열성과 계속성을 갖춘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2. 예술영재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정보(자료 및 연수) 부족

단위학교 예술영재학급 담당교사들은 예술영재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전문 자료와 연수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예술영재학급의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예술영재학급 교육자료 부족과 교육자료 개발의 필요, 자료 공유 및 보급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25.1%(유효퍼센트 50.0%)로 가장 많았다. 또한 교육과정 개발 시 많이 참고하는 자료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관련 연구기관의 자료'가 순위평균 1.61이었고 '다른 학교의 자료'와 '교육청의 자료'라고 응답한 경우가 순위평균 2.67, 2.88이었다. 그런데 면담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자료들은 예술영재와 관련된 자료가 아닌 수학·과학영재교육과정과 관련된 자료들인 경우가 많았다.

교사1: 연간 수업시수의 10% 이상 편성하여 진행하도록 되어있는 인성교육, 융합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영재교육지원센터에서 개발한 "영재인성진로교육자료"와 영재 융합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진행합니다. (중략) 수학이나 과학, 정보 분야 등은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 등에서의 영재교육이 더 일찍 시작되었고 영재교육 기관의 수도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수학습 자료나 다양한 교육과정 참고자료들이 많은데 예술영재 분야(특히 초등 예술영재)는 자료가 많지 않아서 더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으로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사2: 이제 그 영재를 담당하고 영재연수도 많이 듣고 했는데. 보통 영재교육이라는 게, 수학과 학에 좀 많이 치중이 돼 있습니다. 저희도 요즘 뭐 연수를 찾아보면 예술 쪽보다는 요즘 그 뭐 STEAM교육이라고 융합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쪽 관련된 연수가 주가 되고, 음악을 좀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조금 힘들더라고요. (중략) 예술쪽 자료개발이 덜 되어있는 것 같고. 예술쪽으로는 연수도, 사실 좀 많이 개설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학, 과학 쪽으로 많이 돼 있고.

또한 교사가 전문적인 자료를 구하고 자신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예술영재 교원연수를 이수하고자 해도 연수 횟수도 적고 연수 기회도 많지 않기 때문에 자료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가 극히 부족해서 곤란해 하고 있었다.

교사5: 한예종에서 이번에도 연수하는 거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 학교에 오기 전에 저는 오면서 어떤 분이 전근 오셨는데 그분이 미술영재를 많이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교육원에서시인가 어떤 초등학교에서 했었다고. 그분이 한국예술종합학교에 가면 연수도 많고 그런 거에 참여를 하면 조금 길이 보일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 년 내내 기다렸는데 이번에 마지막에 한번 지난번에 심화가 와가지고 심화 저 들어도 될까요 전화 했더니 기본을 듣고 심화를 들어야 된다고 하고 이번에 토요일에 자율연수 왔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수업 하고 있는 토요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못 갔고 그래서 그 학교가 오로지 그거라는 거를 전해 들었는데, 저는 없는 거예요. 저는 그분에게 전해 들어서 그렇게 인터넷에 들어가 보고 하라고 한 건데 오는 건 별로.. 그니까 제가 직접 하지 않으면 들어오는 정보가 없더라고요. (중략) 되게 없는 것 같아요.. 되게 답답해요, 하면서.

이처럼 예술영재와 관련된 전문자료나 연수를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위학교 예술영재 학급 담당교사들은 강사들에게 개인적으로 자문을 구하거나 주변 교사들과의 경험 공유나 업무 협조 혹은 자신의 경험적 지식에 기반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었다.

교사2: 기존의 선생님들이 하셨던 자료를 보기도 하고 다음에 지방의 경우에는 학교에 사생오케스트라나 교육부지정 오케스트라나 그 다음에 예술동아리로 운영되는 그런 음악 관련된 동아리를 갖고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교사선생님들끼리도 같이 연락을 해서, 업무 협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에 아는 음악을 전공하신 oo대학교 교수님분들한테도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또 자료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사3: 사실 이렇게 정형화된 커리큘럼이나 교재 같은 것들을 구하는 것은 힘이 들더라고요. 아직 덜 찾아봐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수업에 대한 것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의 영재성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사실 이제 음악을 전공하신 강사님들과의 사적인 면담을 통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수업을 구성하게 된 것 같아요.

교사4: 그냥 노하우? 그리고 연수자료나 아니면 전에 예고에서 애들 전공지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모아놨던 거, 그냥 그걸로 쓰는 거지 제가 뭐 제작을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때 이제 썼던 것들이나 제가 좀 쉽게 풀어놓은 것들, 악보 같은 거. 아이들이 보기 어려우니까 쉽게 풀어 놨던 것들, 그런 거 가지고 가르쳐요.

교사6: 저희들이 협의회..올해 한 겁니다. 협의회를 하면서 수업하기 전에 한 날, 강사님들이 다 오셔서 자료를 모두 내어 놓습니다. 완전히 디테일하게는 안 짜는데. 그래서 서로서로 이게 참고가 되면서. 어떤 책을 참고하는 게 아니고. 올해에는 그렇게 해 봤습니다. 저희도 이제 사실은 오시는 강사 분들의 자료를 많이 참조하거든요. 동료, 같이 강사하시는 분들. 이런 자료를..하고 출력물도 그것까지 만들고.

전문 자료가 있다고 답하는 경우에도 단위학교 영재학급 학생들 수준에 비해 내용이 어려워서 나름대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했다.

교사3: 학생들의 수준이나 개인차이는 어느 학교나 어느 영재 학급이나 다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준별로 정말 다양한 정보가 있지 않는 이상은 어차피 재구성을 해야 할 것 같고. 어차피 참고 자료 수준인 것 같아요.

질문자: 그니까 수업 콘텐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참고 자료가 될 뿐이고 교사의 영향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사3: 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많아져서 인프라가 좀 많이 형성이 되어있다면 실제로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사4: 맞지 않는다고보다는 조금 더 어렵다고 해야 되나.

질문자: 아이들 수준에 비해서요?

교사4: 네.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좋을 거 같아요.

단위학교 예술영재학급 담당교사들은 예술영재 교육과정과 관련된 전문 자료 중에서도 전문가들에 의해서 일련의 체계화된 예술영재 교육과정이 개발되어 이를 기반으로 각 예술영재학급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사5: 전체를 보고 이 전체흐름이 하나로 연결 돼서 마지막에는 아이들이 뭔가를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어요. (중략) 교육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딱 짜여진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으로 하면 아이들의 무언가가 향상될거다. 목표가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딱, 딱.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략) 교육과정도 잘 알고 계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현직에 있는 선생님들도 의논도 하고 그러면서 완성이 되어가잖아요. 그래서 발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미술영재. 미술이랑 영재랑 잘 아시는 그런 전체를 볼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연구를 해서 그림 현직에 있는 선생님들과 이야기도 해보고 의견을 다 모아 가지고 뭔가를 틀을 딱 짜여지면 정말 이거를 거치고 나면 아이들이 뭔가가 달라질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아이를 더 부각시킬 수 있거나 아니면 없던 걸 꼬집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설문조사에서 ‘교육청이나 연구기관의 교육과정 자료가 예술영재학급 교육과정 개발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가 28.6%, ‘조금 그렇다’가 50.0%였다. 면담에 의하면 교사들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외부 전문가들에게 교육과정 개발에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사6: 이게 외부 전문가가 꼭 있어야 하거든요. 제가 해 보니까.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 분야의 일을 좀 전문적인 공부하신, 학위를 하시거나 정말로.. 이거 뭘니까. 우리는 사실은 월급이... 한 명 외부 전문가가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3. 영재교육 대상자나 영재교육과정의 의미 모호

단위학교 예술영재학급의 교육대상자는 음악이나 미술에 흥미를 보이는 정도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이 학생들을 영재교육 대상으로 상정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교사4: 아이들 자체 스스로가 영재라는 느낌을 못 받아요 (중략) 그냥 영재수업을 받는다 이런 즐거움이 아니라, 그냥 선생님과 논다? 재밌게 그냥 음악수업을 한다 이런 생각? (중략) 영재 애들을 뽑자니 그 안에서 영재 애들을 뽑으려면 정말 다섯 명도 안 될 거예요. (중략) 그냥 음악 방과후이지 이게 어떻게 영재학급이나.

교사2: 일단 저희가 영재학급 학생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일단 기준에 저희 학교 윈드 오케스트라에서, 이제 기량이 뛰어난 학생들을 바로 선발을 해서 소규모로 일단 꾸려놓습니다.

교사5: 아이들이 좀..... (웃음) 뽑아는 냈는데, 뽑을 때 상황이 영재보다는 영재를 꿈꾸는 아이들? 네 조금..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수준이 약간 영재라고 타이틀이 붙을 만큼 높지는 않지만 몇몇, 그래도 두 세 명은 그래도 선생님 수업에 완전히 몰입을 해가지고 눈 끝까지 하려고도 하는데 나머지 애들이 좀 분위기를 흐릴 때도 있어요.

일부 교사들은 이러한 문제가 단위학교 영재학급의 운영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었다.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급 당 인원수를 맞춰야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제로 선발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교사4: 한 기수당 5만원 정도 된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얼마정도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더 모집을 더 많이 하라고 그러는 거 같기도 한데 모집을 많이 하면 아이들이 내는 돈이 적으니깐. 근데 거기는 수업의 질을 높게 하는 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뭐 단지 만약에 다섯 명만 모이더라도 될 수 있게. 그러니까 다섯 명이 모이진 않겠지만 그렇더라도. 그렇게 모집을 하는 게 그렇게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정해놓고... 방과후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5만원이면. 그래서 애들이 이게 방과후이지 영재라는 생각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생각이 있는 애들만 지원을 하고, 들어와서 좀 질 좋은 수업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방과후 같은 수업이 아니라. 저 자체도 그냥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다시 말해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잠재아동들만을 선별하여 교육을 실시할 경우 1인당 부담해야 하는 수업료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수업료의 적정선을 정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예술적 잠재성이 부족한 아동을 프로그램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게 되고 이에 따라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 방법 등이 예술영재교육과 무관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한편 단위학교 예술영재학급은 동아리활동이 영재학급으로 전환하여 만들어진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예술영재교육과 동아리 활동이 혼합된 채로 운영되기 때문에 교육과정 역시

특별한 구분이 없었다.

- 교사1: 음악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이러한 학교의 특성을 살려 특색있는 음악영재학급을 운영해보고자 영재학급 교육과정에 중창단 활동을 흡수시켜, 영재학급에서 배운 가창 실기와 이론을 실제 무대에서 공연을 통하여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중창단 활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다가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된 학생들만이 영재교육을 받으며 동시에 중창단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 교사2: 앙상블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금관, 목관, 앙상블 위주로 교육을 하고, 합주할 때는 또 합주도 하고. 걱정 같은 게 좀, 사실 좀, 드는 편입니다. 이게, 딱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딱 진행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애들 연습을 시키다가 중간에 행사 있으면 행사가고, 연습곡도 하고, 가을에는 콩쿠르 많으니까 콩쿠르 내보내고. 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교사3: 영재학급이 있기 전에 관악합주단이라는 동아리가 있어요. 근데 이 동아리를 맡아 줄 특기교사와 전보를 희망하는 선생님을 모집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오게 된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재능 있는 친구들을 영재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해서 시작을 한 거죠.

단위학교 예술영재학급 담당교사들은 영재교육과정이 심화교육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즉 영재교육과정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된 설문결과에서도 예술영재교육과정 개발 절차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조금 그렇다’ 39.3%, ‘매우 그렇다’ 21.4%, ‘별로 그렇지 않다’ 7.1%, ‘보통이다’ 32.1%로 보통이다 이하가 39.2%나 되었다.

- 교사2: 저희는 무조건 난이도 제일 높은 걸로 찾거든요. 난이도 제일 높은 거에다가, 이전에 한국에서는 연주가 된 적이 없는 곡을 일단 우선적 기준으로 잡고, 선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기존에 있는 곡들을 구하려면, 최대한 새롭고 그런 걸 좀 추구하고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 교사3: 일단 OO초등학교 관악합주단이 보통 동아리라고 하기에는 연습량도 많고 그래요. 그니까, 학교에서도 전국단위 대회에도 몇 번 이렇게 나가서 좋은 성적도 거두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학교에서도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영재 학급 학생들은 관악합주단 학생들이 하는 걸로 인식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 영재 학급에 들어왔다가 관악합주단까지 같이 하게 된 계기는 있었어요.
- 질문자: 그럼 차별성이라고 해야 하나요? 음악 영재 학급을 그래도 듣는 학생들이 그 합주단을 받는 학생들과는 어떤, 다른 교육과정을 받게 되나요?
- 교사3: 일단 기초음악성 향상이라고 해서 제가 시청각 수업도 하고 작곡 수업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학생들은 그냥 방과 후 수업으로 악기만 하지만, 이 학생들에게는 좀 더 음악의 기초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들을 수업시간에 따로 하죠.

교사6: 예고 자체가 영재교육인지. 책도 그래요. 이게 미술교과서인지. 이게 정말 심화된 영재수업인지. 아니면 다양한 체험활동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가 책을 보면서 저도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고요.

이와 같이 단위학교 예술영재학급 담당교사들은 선발된 학생들이 예술영재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으며 예술영재교육과정이 심화교육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예술영재교육과정이 어떤 특징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4.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교사의 개인적 노력에 의존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예술영재학급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기에 교사들의 전문성이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 해결이 교사의 개인적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교사는 예술영재학급 교육과정 개발자로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대학원을 진학하거나 연수를 이수하기도 했다.

교사3: (대학원은) 제가 그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중략) 악기를 부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지휘자에 대한 의존도도 굉장히 높고 지휘의 패턴에 따라서 음악이 금방금방 변해 버리고. 그래서 지휘자가 어떻게 지휘를 해 줬느냐에 따라서 음악이 어른들이 아닌 어린이들이라서 많이 변한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 역할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배워야 하는 거구나라고 결심한거고.

교사4: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배워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중략) 그니까 내가 배워서 가르쳐도 그냥 아이들은 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그냥 연수를 꾸준히 받고 있거든요. 근데 연수를 또 받으려니까 사실 다 이제 다 출석연수잖아요. 그냥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 연수고. 이걸 실기잖아요 그니까 또 저는 제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다른 업무가 줄어들지는 않는 거죠.

교사5: 제가 좀 뭔가 대학원 가는 이유도 어떤 분야를 내 것으로 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싶어서 가는 건데 영재한번 들어봤더니 나는 너무 무지한 거 예요. 지금 내가 계획을 짤 수 있는 그 역량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추상미술을 얼마큼 알며 내가 전통미술을 얼마큼 알며 그런 것을 느끼게 되더라구요.

이와 같이 단위학교 예술영재학급의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교사의 개인적 노력에 의존하고 있어서 교사들이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을 느껴도 여러 여건 상 교육과정을 개선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교사1: 해마다 좀 더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많이 다르지 않게 진행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단위학교 영재학급이 인적, 물적 자원이나 환경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교사의 생각이 창의적이지 못해서일 수도 있겠지요. 나름 해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교사3: 초창기 때에는 어떤 과목을 선정을 해야 할지, 수업시간에 어떤 내용을 해야 할지에 대한 것들이 주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좀 안정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하면 애들을 끌어낼 수 있을까 아니면 학생들마다 좀 다른 교육과정을 주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특히 영재니깐 상당히 개성이 강한 학생들도 좀 많고. 그런 학생들에게 따로따로 해주고 싶은데 아 이게 현실에 부딪힌다. 항상 이 얘기만 하고 마쳤던 것 같아요.

교사5: 물론 스스로의 개발을 위해서 대학원을 가지만 업무 맡으면서 조금은 나도 기분 좋은 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계속 끌려가는 것 같아요.

이처럼 단위학교 예술영재학급 담당교사들은 자신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인적 노력을 하고 있었으나 이 역시 여의치 않은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싶어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다.

5. 장기계획을 세울 수 없는 여건

단위학교 예술영재학급 담당교사들은 예술영재학급에 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되지 않을 뿐 아니라 존속 여부도 교육정책에 따라 변화가 크기 때문에 장기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사2: 이게 뭐 3년간, 혹은 2년간. 아니면 올해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간이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딱. 일시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다보니까 또 프로그램 같은 것이 만약에 2년 동안 저희가 도움을 받으면 2년 이후에는 이렇게, 꾸러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애들 2년만 지원을 받으면서 구성한 사항들이 인적자원이라든지 교육자료 같은 걸 이용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운영이 안 되니까 아예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교사6: 한 해만 들어가고 없앤다고 하더라고요. 학급을 없앱니다. 요번에 교육감이 바뀌잖아요. (중략) 그니깐 이게 급식도 해야 되고 하니깐 싹 다 없애라고 했습니다. (이 지역에) 미술 영재, 우리학교 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또한 정책적으로 특정한 교육내용을 반드시 넣으라는 지시가 있을 경우 이 부분을 포함시켜 교육과정을 다시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이 역시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장기계획을 세워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에 장애요인이 되었다.

교사4: 이걸(융합, 인성) 넣으라고 하더라구요. 그걸 안 넣으면 안 된다고. 근데 사실상 레슨을 해도 그렇구요. 가르칠 때 융합부분이나 인성 부분을 넣으면 저는 꼭 이렇게 융합, 인성 하지 않아도 수업 시간에 제가 적절하게 그냥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노래를 국악 성악 중에서 정가를 가르치면서도 거기서 이제 뭐 시조나 이런 사실 부분을 하면서 인성을 가르칠 수도 있는 거고 한데, 또 인성 부분, 융합 부분 따로 떨어뜨려서 하라니까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첫 시간에 항상 아이들, 음악

이 수학적인 거랑 과학적인 거랑 관련이 깊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에게 그런 거를 많이 가르쳐요. (중략) 근데 그런 거를 융합으로 보면 되잖아요. (중략) 딱딱 나누어서 하라고 하니깐, 그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게 들어갈 기수가 있고 그냥 레슨 해야 될 기수가 있는데. 그거를 굳이 나눠야 하나….

그리고 예술영재학급이 1년 단위로 방과 후나 토요일에 운영되며 담당교사도 매년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육의 연속성을 추구하는 교육과정 개발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교사5: 토요일에 4시간하면 딱 끝나요 그 다음 주 토요일에 딱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딱 끝나고 그래서 전혀 연계가 없어요… 그냥 재로 맛보기? 그냥 그 정도… 그냥 뭐 그런 게 있다… 그 정도 그니까 백화점처럼 이러 이러한 게 있어요. 그런데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일 년으로 끝나지나. 일 년 안에 뭔가 한다는 게 그것도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교사2: 이게, 저희가, 이제 초등 같은 경우에는 매년 선생님들이 바뀌거든요. 제가 회의를 나가 보면 장기로 하신 선생님들이 올해 바뀌어있고, 내년에 또 바뀌어있고. 그리고 또 시골학교 같은 경우는 더 심하거든요. 시골에도 이제 영재학급을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매년 담당선생님이 계속 바뀝니다. 그게, 그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힘들고, 뭐 아무런, 이게 보상이 없기 때문에 신규 선생님들이 다 떠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운영되기가, 사실 어려운 점이 많아서.

IV. 단위학교 예술영재학급 교육과정 개발의 개선방안

단위학교 예술영재학급 교육과정 개발의 측면에서 위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위학교 예술영재학급을 담당하는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지원이 필요하다. 예술영재학급의 운영 및 교육과정 설계와 실시를 주관하는 담당 교사는 주어진 교육과정 지식을 학습자들에게 충실하게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존재가 아니라 교육과정의 중심에서 자신이 이해한 교육과정을 자기만의 방법으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실행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예술영재교육에 관한 수준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Croft, 2003; Karnes & Stephen; 원영실, 김은경, 2014). 그런 점에서 예술영재학급의 담당 교사는 예술영재교육과정 및 학생에 대한 이해, 영재교육기관 운영 방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예술영재교육 연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등교사의 경우, 교육대학에서 예술관련 분야를 심화 전공으로 이수하기는 했으나, 중등교사만큼의 예술적 전문성 함양에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예술에 대한 전문성 부족을 보다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교사 연수를 할 때 학교 급별로 다른 연수 내용을 제공하거나 교사 연수에서도 영재교육처럼 수준별로 차별화 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단위학교 예술영재학급의 교육대상이나 단위학교 예술영재 교육과정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한다. 우리나라 영재교육기관은 단위학교 영재학급, 지역공동 영재학급, 대학이나 교육청 부설 영재교육원, 영재학교로 구분되어 있고 이 기관들은 단위학교 영재학급에서부터 영재학교까지 상향 구조로 이루어진다. 즉 단위학교 예술영재학급에서는 예술적 잠재성을 개발하는 기초예술성 배양 단계와 예술영재성 개발 단계 정도에 해당되는 교육이 필요하다. 단위학교 예술영재학급의 영재들의 영재성 수준을 고려한 체계적인 단위학교 예술영재학급 교육과정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단위학교 예술영재학급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교육과정 개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예술영재 성취기준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단위학교 예술영재학급은 예술영재교육에서 기초예술성 배양 단계와 예술영재성 개발 단계에 해당되므로, 지나치게 전공을 세분화하고 연주나 표현 능력 향상에만 초점을 두기 보다는, 충실하게 기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술영재들이 자신의 예술적 잠재성을 개발하고 정교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자면 초등학교의 단위학교 예술영재학급에서는 지나치게 전공을 세분화하여 접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렇지만 예술영재 성취기준을 개발하여 성취기준을 기반으로 단위학교 예술영재학급의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술영재교육은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수준을 인정하고 차별화 교육을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취기준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예술영재교육이라면 적어도 어떤 것들이 교육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으로써 성취기준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위학교 예술영재학급에 적절한 수준으로 교육과정이 개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단위학교 예술영재학급의 교육대상자 선발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분야별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교사들과의 심층면담은 대다수의 교사가 영재학급에서의 교육목표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상급과정의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의 난이도를 낮추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예술영재학급의 목표와 맞지 않다. 또한 잠재성이 부족한 학생들을 영재로 선발하고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다 보니 전체 학생 수를 늘림으로써 수업료를 줄이고 있고 예술적 잠재성을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하기 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단위학교 예술영재학급의 정체성과 사회적, 교육적 역할 수행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었다. 가능한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겠으나 다른 요인들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체계적인 선발 절차를 거쳐서 선발된 예술영재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예술영재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과정 개발은 교육과정 전문가나 베테랑 교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며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기반으로 해야 가능한 일이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전문적인 정보 없이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일은 누구에게도 가능하지 않으며 이는 예술영재 교육과정 개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성공적인 영재교육을 위해서는 분야별 특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수학·과학영재교육 자료들을 참고하여 예술영재 교육과정을 개발

한다는 것은 예술영재의 특수성이 포함되지 못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실행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 예술영재 교육과정과 관련된 연구들을 단위학교 예술영재 담당교사나 강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센터에서는 교사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인증제를 구축하고 연구 결과물이나 연구 자료들을 공개하고 있다. 영재교육은 아니지만 융합인재교육(STEAM)과 관련된 자료들 역시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교사 인증을 통해 교사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예술영재 교육과 관련된 자료들은 연구를 수행한 기관 별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어느 기관에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를 찾기 어렵다. 공공기관으로서 예술영재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을 수행해 온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기존에 수행된 연구 자료들 뿐 아니라 타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들까지 검색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면 예술영재학급 담당 교사들이 좀 더 쉽게 전문적 자료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단위학교 예술영재학급 담당교사들이 교육과정 개발을 할 때에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기존의 예술영재 교육과정 관련 자료들이 단위학교 예술영재학급 학생들의 수준에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단위학교 예술영재학급을 위한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한다. 예술영재교육은 분야가 다양하고 학생들의 수준 역시 다양하기 때문에 단위학교 예술영재학급에 최적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교사 혹은 교육과정 전문가라도 개별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학교와 관련된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협력적 실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함께 모여 무엇인가를 함께 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교육과정 개발이라는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함께 협력해야 하고,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공유된 목적을 가지고 협력의 모든 과정(계획, 실행,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경험들에 대해 협력적으로 반성하는 것이 필요하다(이경진, 최진영, 2010).

이를 위해서 최근 주목받는 것이 교육 컨설팅이므로(구자역 외, 2013), 교육과정 개발 협의체나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실행될 단위학교 예술영재학급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대학교수나 연구원으로 구성된 전문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컨설팅을 수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이희현, 김미숙, 정경란, 2009). 또한 문화예술이나 예술영재교육을 전공한 인재들을 활용하여 예술영재교육 코디네이터로 투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현재 과학영재교육에서는 코디네이터를 교육시켜 투입하고 있다. 예술영재교육에서 코디네이터를 교육하고 투입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이수자를 대상으로 심화 과정으로 예술영재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후 이들에게 예술영재 코디네이터 자격을 수여하게 하거나 대학원에서 예술영재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자원을 받아 지역 교육청이나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의 관리 하에 단위학교 예술영재학급의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에 투입되도록 한다면 청년예술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앞서 중장기적 안목에서 예술영재학급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실천해야 한다. 특히 현직교사에 대한 연수나 재교육 강화와 더불어 예술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양성기관과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예술영재학급과 교육청 산하 지역공동 영재학급의 경우,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이지만 실제로 그러한 교육과정이 마련된다 할지라도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교원이 거의 없다. 현재 예술영재학급 운영과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은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같은 교원양성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이들로써 일반학생들을 가르치기에 적합한 교직적성과 자질, 직무역량을 갖추고는 있다. 그러나 정교하고 전문화된 능력을 요구하는 예술분야의 전문성이나 예술적 소양이나 지식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해 예술영재교육에 투입되기에는 다소 적합하지 않다. 예술영재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현직 교원들도 기존의 교원양성체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원 ‘개인’의 적성이나 관심에 의해 길러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과전문성과 숙련성, 교직적성과 자질, 다양한 역량이 예술영재담당교원이 갖추어야 하는 기본조건임에도 이를 모두 충족시키는 우수한 교원이 현재 예술영재교육현장에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분야전문성(전문지식 및 실기 능력)과 예술 각 분야의 속성과 문화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교원이 예술영재교육에 투입되고 있어 실제로 예술영재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태생적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에서는 ‘대학원 영재교육학 학위과정 및 교양강좌의 신설과 확대’ 그리고 ‘교원양성기관의 영재교육 교직과목 이수 강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처럼 대학원 내 영재담당전공을 개설하거나 교대 및 사대에 예술영재관련 교과목을 특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에 문화예술교육사 과정이나 예술대학 내 예술영재교육관련 세부전공이나 교과목을 개설하여 실제 예술영재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교원이나 코디네이터 양성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V. 제 언

단위학교 예술영재학급은 잠재영재 발굴 및 예술영재의 기초예술성을 기르는 체계적인 예술영재교육의 기반이 되는 기관이다. 따라서 단위학교 예술영재학급의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향후 예술영재교육에서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단위학교 예술영재학급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의 개선 방안에 더하여 예술영재교육의 개선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영재교육은 수학·과학영재교육과 다르다. 물론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시작이 수학·과학영재교육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수학·과학영재교육의 필요도나 이해도가 높을 수밖에 없으며,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도모하는 현재 교육정책의 중점사안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사회적 요구도도 높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수학·과학영재교육이 다른 분야, 특히 예술영재교육의 기준점이 될 수는 없다. 예술영재교육은 예술이라는 분야의 특성상 영역도 다양하고 각 영역에서의 세부영역도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수학·과학과는 교육적 접근 방법이

다르다. 이론과 실기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지만 실기교육을 필요로 한다는 점은 수학·과학영재교육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하다. 또한 창의성이 더욱 강조되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러한 점에서 교육의 결과물 즉 산출물에 대한 관점과 평가도 달라야 한다(이미경 외, 2006). 따라서 향후 예술영재교육의 특성과 흐름을 반영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실행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예술영재교육 교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예술영재의 잠재성 발굴과 재능 계발에 목적을 둔 단위학교 예술영재학급의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은 단지 단위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과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개입해야 하는 문제다.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Gustavo Dudamel)이나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은 예술영재에 대한 지역과 국가적 관심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이들의 음악적 재능이 발현되고 뛰어난 음악가로 성공하게 된 것은 개인적 차원의 노력과 함께 지역 차원,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이 더해진 덕분이었다. 이들의 예는 처음 재능을 발견하면서부터 그가 교육을 받고 예술가로 성장하기까지 단위학교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가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예술영재가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는 것이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그 사회가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나 필요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 융성이 현 정부의 국정기조인 만큼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뿐 아니라 모든 예술영재에 대한 교육 역시 지역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술적 재능의 발굴에서부터 교육에 이르는 체계적인 연계 측면에서 볼 때, 단위학교 예술영재학급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지역공동 예술영재학급, 교육청 부설 예술영재교육원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국립예술영재학교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예술영재교육기관 컨설팅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중앙영재교육컨설팅단에서 예술영재교육기관도 컨설팅하고 있으나(한국교육개발원, 2014), 예술영재교육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컨설팅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예술영재교육은 분야도 다양하고 분야마다 특징이 다르므로, 이러한 특징들이 충분히 반영된 컨설팅을 구축하고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예술영재교육기관 컨설팅을 통해 단순히 일회적으로 컨설턴트의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술영재교육기관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해당기관의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자율적으로 컨설팅하도록 위해서는 예술영재교육기관의 구성원들 스스로 컨설턴트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이경진, 2014). 처음에는 외부 컨설턴트로부터 컨설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컨설팅을 통해 예술영재학급 담당자들이 전문성을 개발함으로써 작은 부분을 혁신할 때에는 외부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해결하여 예술영재학급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2013).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13~2017). 교육부.
 구자억, 박승재, 안병환, 이석열, 정택희(2013). 학교컨설팅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교육

개발원.

- 김성혜(2013). **예술영재교육연구원 중장기 발전계획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김영천(2012). **질적연구방법론 I**.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김춘미, 한수연, 이미경, 전동호, 신기현, 조주현, 김정환(2006). **예술영재교육 발전방안 연구**. 서울: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김혜정, 한기순(2013). 단위학교 영재학급 선발방식에 따른 영재 특성 비교. **영재교육연구**, 23(2), 257-273.
- 백경미(2012). 한국 미술영재교육 현장의 요구. **기초조형학연구**, 13(3), 153-161.
- 원영실, 김은경(2014).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평가지표 개발. **영재교육연구**, 24(2), 191-215.
- 이미경, 강병직(2010). **예술영재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과학창의재단.
- 이미경, 강병직, 조주현, 홍소영(2006). **예술영재교육대상자 선발모형 개발 연구(I)**. 서울: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이경진(2014). **예술영재교육기관 컨설팅 모형 개발**. 서울: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이경진, 최진영(2010).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협력적 실천: 초등교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28(2), 91-119.
- 이경진, 최진영(2013). 미술영재교육과정 평가에 대한 교사 인식과 요구: 영재교육기관 유형별 사례연구. **영재교육연구**, 23(4), 537-565.
- 이정규, 김미숙, 박춘성, 이승희, 이행은(2007). **영재학급·영재교육원 운영실태 및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학식, 임지훈(2014). **사회과학 논문작성을 위한 연구방법론**. 서울: 집현재.
- 이희현, 김미숙, 정경란(2009). **영재교육기관 맞춤형 컨설팅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정진원(2012). 음악영재성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모형연구. **한국초등교육**, 23(1), 269-291.
- 한국교육개발원(2014). **2013년 중앙영재교육컨설팅 성과보고회**.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Croft, L. J. (2003). Teachers of the gifted: Gifted teachers. In N. Colangelo & G. A. Davis (Eds.), *Handbook of gifted education*. Boston, MA: Pearson.
- Karnes, F. A., & Stephens, K. P. (2008). *Achieving excellence: Educating the gifted and talented*. Old Tappan, NJ: Pearson Education Inc.
- Miles, B., & Huberman, A. M.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Abstract =

Exploring the Problem and Solution in Curriculum Development of School-based Program for the Gifted in the Arts

Kyungjin Lee

Korea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the Gifted in Arts

Sunghye Kim

Korea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the Gifted in Arts

Byoungjik Kang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problem in curriculum development in school-based gifted program in the arts and suggest the way to solve that. For this study, we surveyed 28 teachers and guest instructors, furthermore interviewed 6 teachers (4 in music and 2 visual arts). The study results indicated that not only curriculum development of school-based program for the gifted in the arts was not systemic, but also most teacher depended excessively on guest instructors due to the lack of expertise and information for curriculum development. Also, They did not understand specific meaning of the giftedness and gifted curriculum in arts nor recognize the unique role of school-based gifted program. In addition, most teachers simply attempted to solve lack of knowledge and experience on a personal level. Their research condition were inadequate to plan curriculum. To solve these problems in curriculum development in school-based gifted program in arts, we suggested some solutions: differentiated teacher in-service program, the achievement criteria for fundamentals of curriculum, system for connecting materials, information and human resources, as well as consultative body for improving the present condition of school-based gifted program.

Key Words: School-based gifted program in the arts, Curriculum development

1차 원고접수: 2015년 3월 26일
수정원고접수: 2015년 4월 28일
최종게재결정: 2015년 4월 28일